

# 인구유입 정책 다변화 필요 절실

### 익산시, 인구 30만명 붐과... 청년층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큰 원인

익산시 인구 30만명이 붐과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11월 말 인구 조사 통계 결과 익산시 인구는 29만 9948명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그동안 인구 30만명 사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11월 기준 인구가 30만명 미만으로 조사되면서 인구유입 정책 등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가 3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교부세 감액은 물론 행정기구 축소, 공무원 정원 감축, 국회의원 수 감소 등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악재가 뒤따른다.

여기에 광주와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익산시는 지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며 32만9212명을 기록한 후 1995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33만9595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 2010년에는 31만773명, 2015년에는 30만6369명을 기록해 왔다.

결국 올해 1월 30만1061명이던 인구가 11월 현재 29만9948명으로 집계되며 30만명 인구가 무너졌다.

인구 감소요인으로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만15세이상 39세 미만 인구가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매달 200명 이상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유입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익산지역의 경우 올해 출생자가 1761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1942명으로 인구통계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수를 앞질렀다.

익산시는 30만명 인구사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주소 이전 대학생 등에게는 학자금 지원하고 군부대와 기업체에서 집권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만15세이상 39세 미만 인구가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매달 200명 이상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

또 익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19세 이상의 시민에게는 익산사랑카드를 발급,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시책에도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가 27만명 미만으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시정 1개국 축소는 물론 국회의원 수 1인 감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형국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정책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 시민운동 전개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30만명 인구 사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AI 바이러스 차단 방역 총력

### 익산시, 가금농가 전화예찰 실시·방역취약지구 소독

지난 11월 18일 고창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철모 부시장이 지난 1~2일 관내 AI 거점통제소소를 찾아 긴급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인 민간요원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지만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통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소독약과 소독기 등이 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함께

24시간 상시방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철모 부시장은 "시가 익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의 철저한 소독을 기본으로 외부인과 차량출입통제 및 농가모임장제·철새도래지 방문제한,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시는 전담공무원을 통해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공동방제단과 함께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지구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장에 박종묵 총경 취임

제25대 군산해양경찰서장에 박종묵(사진)총경이 4일 취임했다.

박 서장은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등학교와 군장대학교를 거쳐 1983년 순경 공채로 해양경찰청에 입문했다.

이후 군산·태안 해경서 형사계장, 중·대형함장, 5000t급 경비함(이정호함) 함장, 기획운영·해양안전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양경찰 업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댄 베테랑이다.

그는 한·중 수교의 기틀을 다진 1985년 중국 어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베이스퍼리트 기름유출사고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함장 재직 중에는 50여 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검거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이 뛰어나 해경에서는 전문가로 불린다.

박 서장은 "서해권 해상교통의 중심지인 군산서장 직위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고향의 바다를 다시 찾는 기회도 낳으리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바다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찰행정, 활기차고 화목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임 채광철 서장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립도서관, '책 읽는 가족' 인증서·현판 수여

군산시립도서관이 지난달 30일 을 한 해 독서활동이 활발한 가족에게 2017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함께 현판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가족단위 독서생활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산시에서는 3개 도서관(본관, 늘푸른, 설립에서) 총 47가족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가족 모두가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가족 중 1년 간 도서대출 실적이 높고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정준기 과장은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



로도 시민이 시립도서관을 통하여 활발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 읽는 가족 사업'은 가족단위 독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총 32가족이 선정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통합사례관리사 심층 사례관리 교육 진행

군산시는 4일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사례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의 문제 해소를 돕고자 전문가를 초빙해 심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한국 사례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순 사회복지학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교육생들에게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원광대 농·식품특성화사업단 '나눔 가드닝' 캠페인 펼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농·식품융합대학 산립조경학과 학생들이 전주 및 익산 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나눔 가드닝' 캠페인을 벌였다.

원광대 안심안전 농·식품특성화사업단 지원으로 10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번 가드닝 봉사는 지역에서 썸지 정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찾기, 적합한 수종 선정 및 디자인, 부지정리 및 식재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 가드닝이 진행된 곳은 익산 맹아학교와 전주 동초등학교로 맹아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꾸리고, 동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추진한 '노숙동 인문생태공원' 조성에 힘을 보탤다.

/익산=정양원 기자

# 다고내 푸드,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보내

### 미등록경로당 김장김치·행복나눔마켓뱅크 라면 기탁

(주)다고내 푸드(대표 김강용)가 익산시 미등록경로당에 김치 5kg 30박스과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라면 100상자(2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4일 오전 시청 시장에서는 김강용 대표를 비롯한 정현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기탁된 김치는 (주)다고내 푸드 직원들이 재료부터 다 준비하여 손

수 담긴 김치이며, 라면은 직원 단합대회 때 모은 성금으로 구입했다.

김강용 대표는 "나눔수록 오히려 저와 직원들이 더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져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우리 다고내푸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석암동에 소재한 (주)다

고내 푸드는 각종 소스를 만드는 회사로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매년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김치, 라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는 저소득층에게 과자 등 총 2800만원 상당을 후원한 바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